치 사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이 창립에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명사적 의의와 불교'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더욱이 각계각층과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에 이 세미나의 의의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지난해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를 봉행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그리고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졌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70년 동안에 분단과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의 손을 맞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오랫동안 서로에 대한 원망과 대결을 지속하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어 왔습니다.

문화의 분리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서구사회에서 통용되는 단어들을 남발하고, 다른 한 곳에선 어설프고 어색한 언어가 일반어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이질감을 주고 있습니다. 언어의 이질화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우리 사회가 민족의 통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대변합니다.

오랜 세월 지속된 이념과 체제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은 통일 후에도 잔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통일은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아무리 현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통일과 그 후를 위한 준비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차근차근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인 격차가 통일 후에 어떤 형태의 문제로 불거질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하나됨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체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에너지 낭비가 사라지고, 문화와 언어의 동질성이 회복되며, 경제는 활성화 될 것입니다. 동북아의 정치·외교학적 지형에 대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며, 국력과 문화가 세계 중심으로 더욱 발돋움 하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통일은 반드시 공존과 상생을 근본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과정이 폭력적이거나,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통일에 필요한 가르침들을 발굴해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일에 다 같이 분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한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과 봉은사 주지스님 등 관계자 여러분, 또 발표에 참여하신 여러 석학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8(2014)년 3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